



항일여성

3호 | 2018. 3.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독신의 여장군, 에너지로 기림 받다

- 신영숙 본회 기획위원장

말 그대로 여장군
평복을 호령하고
전국을 뒤흔들었다

평복 유복한 집에
태어나
총애를 받았건만
애비 없이
조부 손에
모친도 일찍 여위어
고모의 돌봄 속에
16세에 강제 혼인
자녀 없이 22세

아편 중독 자살한 남편
의주에서 기독교인 되어
24세에 서울로
상동교회 다니며
이화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소학교 교사
이화 기숙사 사감도

활달한 성격에
사회운동가들과
쉽사리 좋은 만남
사귀를 갖고
차미리사에게서
큰 배움 주고받았다

이준과 함께
조선부인회 조직
이화학당 교사로
국채보상운동도 했다

일본 유학 중
병이 들어 졸업도 않고
귀국 후 부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
“달아달아 밝은 달아”
조신성이 놀던 달아”
노래까지 유행했다

외국인 교장과
뜻이 맞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귀향

평양의 쓰러져 가는
진명여학교 맡아
여학생을 몇 배로 늘린
성공한 여성교육운동가
근우회 중앙회장으로
평양근우회 회관도 세우고
중국 넘나들며
항일독립운동가 돕고
평북 영원 덕천 맹산 3개 군
청년 모아 맹산독립단
일명 대한독립청년단
여장군 되어
6천여 원 군자금 모우고
무장 투쟁 준비했다

옥중에서 만난 교도관
단원 삼아
선전물 만들고
일본 관헌 협박

관청을 폭파하고
운반차 습격하여
관비를 탈취하고
상해 임정 도우려 한
크고 대담한
엄청난 일들
일제를 떨게 하여
단원 수십 명 중에는
사형 당한 자도 있었다

조신성
이미 치안유지 방해죄로
6개월 수감 중
다시 새 법정에서 서서
당당하게 시치미 떼며
부하들을 감싸주고
2년 6개월 형을
더해 받았다

연료하나 씹 없는 운동가
출감 후 고향에서
인재 양성과 운동가 돌봄에
현신 곳곳에 고향원 세우고
안창호와 동지 위한
수양관 지어줬다

혈혈단신
민족과 여성만 생각한
그의 노고에
동아일보는
1934년 9월 20일
평양 모란봉 앞 대동강변
회갑 잔치 열어

감사하고 축하했다
조만식은 축사로
“무晨星(새벽별)”이라는
별칭 이름 붙였다

치마 두른 여장부
이름 그대로 당당하게
빛나는 조신성
해방 후 김일성 아래
견디지 못했다
고향과 이웃을 버리고
동지 찾아
과감히 서울로.

6.25를 만나
부산까지 피난살이
신망에 요양원에서
노환에 시달리다
한 많은 이생을
총총 마감했다.

전쟁 중 누구에게도
돌봄 받기 어려웠다
먼 훗날
후배들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어머니날 제정에
그를 기렸다
여성운동의 대모
여장군 조신성이라고.



조신성
항일여성독립운동가
(1874~1953)

대한독립청년단

1920년 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 평안남도 총무 김봉규(金捧圭)가 평안남도 각 군을 돌아다니며 만든 대동군의 청년단과 조신성이 조직한 영원·덕천·맹산 지방의 청년단, 두 개 단체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항일투쟁을 펼쳤다. 독립군자금을 모금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내고,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무기를 배급받아 친일분자를 처단하며, 항일독립전쟁이 개시되면 결사대를 조직해 무력투쟁을 전개하고, 국내에 파견되어 오는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 등이었다. 조신성의 대한독립청년단은 맹산군 선유봉 호랑이굴 안에 본부를 두고 안국정(安國鼎)·이원보(李元甫)·나병삼(羅炳三)·나신택(羅信澤)·예준기(芮俊基) 등 수백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1921년 6월 일제에 검거되어 19명이 사형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목차

- 02 독신의 여장군, 어머니로 기림 받다 – 신영숙 본회 기획위원장
- 03 목차
- 04 **인사말** 김희선 회장_ “너도 조선 소녀를 본 받아라”
- 06 김알렉산드라 서거 100주기에 부쳐_ 정철훈(한국근대문화연구소장·언론인)
- 10 3.1혁명 98주년 기념 “**상징사진 전시회**” 태극·무궁화·조선부채에 새겨진 상징사진
- 12 2017년 광복 72주년 “**3.1혁명에서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대행진
- 13 **2017 가을기획강좌 – 대륙을 휘날리던 항일여성 혁명가들**
- 14 **되돌아보는 2017년**
- 15 **3.1 혁명 100주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16 3.1혁명 99주년 기념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야외 초상화 전시회·기념공연·합창 “**오늘 그들 여기에**”
- 18 3.1 대한독립선언서보다 한달이나 앞서 발표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대한독립여자선언서**
- 19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여수감자 현황과 특징_박경목(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 34 **2018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나아갈 길**
- 35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창간호 발간에 도움 주신 분들**

발행일 2018년 3월 26일 통권 3호

발행인 김희선

발행처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용두동 232-20) 사숙재회관 402호

편 집 편집부

디자인 인쇄 디자인포인트

“너도 조선 소녀를 본 받아라”



회장 김희선

오늘 우리는 3.1혁명 100주년을 한해 앞두고 있다.

아흔 아홉 번을 해마다 보낸 3.1혁명일 !!

이 긴 세월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역사의 물음 앞에 할 말을 잊게 된다.

치욕스러운 일제강점기에 치열한 독립투쟁 전선에 자신들의 귀한 목숨을 조국독립에 바쳐 투쟁한 애국선열들의 용기와 신념, 그 애국심 !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들의 소중한 투쟁정신을 받들어 위로해 드릴 수 있겠는가 ?

우리는 이 엄중한 역사의 물음에 겸허히 웃기를 여미며, 시대정신이란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 보아야 할 것이다.

3.1독립선언은 우리민족이 자주독립국임과 자주국민으로 인류평등사상과 세계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천명한 것이다.

3.1혁명은 조선의 전체인구 1/10 이 참여한 시위로서 세계 혁명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런가 하면 2.8독립선언과 대한독립녀자선언서는 3.1혁명 이전에 발표되어 기미독립투쟁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리민족의 독립투쟁사는 전 세계 모범이 되어 약소국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이 소중한 독립투쟁역사에 관심과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심지어 반역사적인 것들은 ‘교과서 국정화’ 따위의 수단으로,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를 배울 기회를 빼앗아 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청소년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부끄러움이며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 하겠다.

그런가하면 아직도 우리 항일독립운동사에 항일여성독립전사들의 투쟁적 삶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대로 묻혀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도처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 식민사관의 뿌리를 뽑아내어 선열들의 영전에 바쳐야 한다.

“역사는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준엄한 역사 규정을 우리는 책임있게 실천하여 잘못된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바로잡아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3.1혁명 99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수많은 어머니와 아내들이 형무소 앞 골목에서 샴바느질과 막일을 해가면서 자식과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다. 이들 수감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모두가 독립 운동가들이다.**” 라고 격려했다.

이것은 늦었지만 묻혀 있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여 그 투쟁정신의 소중함을 현창하라는 것이라 하겠다.

항영 독립운동가로 인도의 초대 수상이 된 네루는 감옥에서 조선의 어린 소녀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을 보고 ‘세계 사편력’이라는 책에 “우리 인도에는 왜 한국의 여성처럼 용감한 여성들이 없을까”라고 탄식하며 그 딸에게 “너도 조선 소녀를 본 받아라”라고 기록했다.

이렇듯이 우리들의 선열들이신 할머니, 어머니, 고모, 이모, 언니, 누나들의 애국투쟁 정신은 3.1혁명을 이끌었고, 이 뿌리는 이 시대 자랑스러운 촛불시민혁명을 완성시킨 것이다.

이 뜻을 받들어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시민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15 72주년 기념행사는 **“3.1혁명에서 8.15광복에 이르기까지”**라는 깃발을 들고 480여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293명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안고 촛불광장에서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까지 2.4킬로미터의 추모행진을 이어갔다. 그날의 청소년들의 함성은 항일여성독립전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99주년 3.1혁명일에는 탑골 공원에서 **“오늘 그들 여기에”**라는 주제로 여성독립운동가 133명의 초상화 전시회를 열었고 또한 기미독립 99주년 기념식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창립 4주년 행사, 선열들을 위한 추모헌공차례, 100여명의 청소년들의 독립선언서 제창, 모두 함께 부르는 ‘그날의 합창’ 으로 선열들의 정신을 기렸다.

앞으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항일여성독립투사들의 희생적인 삶과 정신을 계승하기위해 시민들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문화제를 매년 마련할 것이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역할 사례극, 글짓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바른 역사의 찬란함을 일깨우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3.1혁명 100주년에는 이것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유.무명의 항일여성독립투사들의 투혼을 조형물로 제작하여 우리 역사 속에 영원토록 남기고자 한다.

앞으로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행동하는 대일항쟁기 36년간의 투혼을 이어받아 우리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에 한 몫을 다하고자 한다.

지난 4년여 동안 본회를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는 회원님들과 참여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화운문화원 박남식 원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시간봉사로 굶은 일도 마다않은 자봉활동자들! 이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남다른 역사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늘 고맙습니다.

김알렉산드라 서거 100주기에 부쳐

정철훈(한국근대문화연구소장·언론인)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스탄케비치(1885~1918). 그는 10월 혁명시기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러시아공산당의 전신) 하바롭스크시 당 비서이자 극동 인민위원회(정부) 외무위원장으로 활동한 한인 최초의 볼셰비키이다.

1918년 4월 이동휘·김립·박애·오성묵 등이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주의자동맹을 결성할 때 독립운동의 한 방책으로 레닌 집단과의 전략적 연대를 추구한 것과는 달리 알렉산드라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볼셰비키였다. 하지만 그는 볼셰비키라는 하나의 정체성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한인이자 러시아인이었고, 심지어 중국인이었다. 국적은 러시아였지만 그는 한·중·러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자와 피압박 민족의 권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의미의 국제주의자였다.

중국의 시진핑이 사실상의 종신제 주석으로 장기집권에 들어가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4선 가도를 달리며 스탈린에 버금가는 장기 집권에 들어간 작금의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다민족 간의 공존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알렉산드라의 활동상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올해는 알렉산드라 서거 100주기이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 영웅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후에 진정한 영웅으로 추

앙받았다. ‘서거 100주기’에 방점을 찍으면 그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도 극적이다. 러시아 적위군과 백위군 간의 내전이 정점에 이른 1918년 적위군에 가담해 극동 방어에 나선 알렉산드라는 백위군 가운데 가장 잔인한 칼미코프 부대에 체포되어 가혹한 심문을 받았다.

알렉산드라의 최후는 백위군의 법정 심문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문은 백위군 법무관인 칸다우로프 소위에 의해 1918년 9월 2일 행해졌다. 조서에 따르면 그는 하바롭스크 극동인민위원회 외교위원장이었고 담당 업무는 적위군에 입대하는 외국인 병사등록, 여권 발급, 외국인 전쟁 포로 임시 수용 등이었다.

알렉산드라에 대한 사형은 9월 25일 백위군 병사들에 의해 집행됐다. 올리넥은 유독 사형집행을 자원한 병사였다. 그는 군 복무 중 의무회피죄로 체포되어 한동안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어느 날 그는 수감된 어느 정치인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나는 칼미코프 대장이 이끄는 군대의 군 사법부에서 일했다. 나의 손을 통해 모든 것이 행해졌다. 칼미코프 대장에 도시에 돌아왔을 때 나는 곧장 그에게 불려갔다. 그는 나에게 ‘당장 총살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하바롭스크 역에는 두 종류의 객차가 있었다.

한 객차엔 호송대원들이 있었고 다른 객차엔 총살되어야 할 죄수들이 있었다. 그 객차에 들어간 사람은 끝이라 보면 된다. 밤에 그들을 객차에 태웠다. 우리는 그들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데려가 삼을 주고 구덩이를 파게 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의 등을 구덩이 쪽으로 향해 서게 했다.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에게서 5보 떨어져 총을 쏘다. 그들은 구덩이로 쓰러졌고 우리는 즉시 그것을 메워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영웅적으로 죽은 한인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교양 있는 위원회 대표자였다. 그녀 뒤로 두 명의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구덩이를 판 후 “나는 이 세상에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대표해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첫발에 쓰러졌다.”

서거 100주기를 맞아 생각하건대 모스크바 유학 시절인 1990년대 중반, 필자가 수집한 알렉산드라에 관한 문헌은 공적 기록에 비해 회고기, 수기, 비망록, 일기 등 사적 기록이 월등히 많았다. 사적 기록을 남긴 사람은 고려인과 러시아인을 망라해 20여 명에 이른다. 그들은 지금 모두 사망했다. 하지만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라에 관한 새로운 정보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을 종횡으로 누볐던 그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알렉산드라의 생애

는 오늘날 복원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가 알렉산드라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그들 덕분이다. 그들에게 알렉산드라는 하나의 흐느낌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죽은 자의 흐느낌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지 않은가. 그들은 희미한 기억을 붙잡은 채 알렉산드라의 일거수일투족을 되살려냄으로서 알렉산드라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리인섭, 박청림, 연성용, 김세일, 채 마리아, 올리나 이바노브나, 웨르친코바, 나탈리아 그리예바, 비셰노비치, 비홉스키, 바비체프, 골리온코, 예카, 게라시모와, 표도레치, 보로가비치, 보티리, 스탈포파, 엘리자로바 등등.

그 가운데서도 알렉산드라의 여동생 채 마리아 페트로브나의 증언은 너무도 소중하다. 마리아는 알렉산드라가 블라디보스톡과 중국 산차커우 지역을 넘나들며 한·중·러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던 시기, 목숨을 걸고 서신 등을 전달했던 채행길과 결혼해 '채'씨 성을 갖게 되었고 언니가 사망한 후 우여곡절 끝에 모스크바로 이주해 살아가고 있었다. 채 마리아는 러시아어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얼마 전, 나의 사위 니콜라이 블라디미로프 에쿠는 리인섭 동지가 내 친언니 A.P.김의 대해 쓴 회고록과 사진을 가져왔다. 사진 뒷면에는 혁명전쟁에 참가한 내 언니의 동료가 극동 지방 어느 농가의 지하에 숨어 지낼 때 쓴 글이 있었다. "이 사진을 간직하고 기억하라. 그녀는 자신의 민족의 진실한 딸이었다. 그녀는 극동 지역에서는 여성 최초로



마르크시즘-레닌이즘 따랐고, 또 최초로 혁명전쟁에 참가했다."

언니를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있다. 하바로프스키 지역 공산당 기념 및 기록물을 담당자 엘리자로바 2세는 1957년 7월 2일 리인섭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이리하다: "하바로프스키 기념관에 A.P.김을 기념하는 전시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그녀의 인명 기록물과 사진들을 수집중에 있다. A.P.김의 대한 기록 수집에 협조하기 바란다."

그 이외에도 리인섭이 쓴 「A.P.김 스탄케비치에 대한 회고록」은 북조선역사연구소로 보내져 조선어 번역본으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그 사진으로 그녀를 기념하는 대형초상화가 만들어져 평양에 위치한 혁명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나는 집중해서 언니의 전우가 쓴 회고

록을 읽고, 그리고 그녀의 일대기의 대한 기록을 추가하려 한다. 또 그녀의 혁명 업적도 추가하려고 한다.

나의 언니 A.P 김은 1885년 2월 22일에 태어났다. 그녀의 조선 이름은 어린네이다. 아버지는 1902년 6월 6일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1896년부터 Y BЖГ(동시베리아철도국)에서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 정거장에서 빨따뚜라 정거장까지 공사하는 기간 동안 중국어 통역사로 근무했다. 아버지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한인과 중국인을 채용하고 그들을 공사장으로 보냈다.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은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 정거장에서 중국의 아세헤 정거장으로 이동하며 공사 인부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다.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은 중국어를 잘 구사하게 되었다. 특히 나의 언니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더더욱 그러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인부들 사이에서 다문화적인 방식으로 자랐다. 인부들은 우리들의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들을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고, 우리 역시 그랬다. 아세헤 정거장에 온 후로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서 러시아인 인부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 당시 정류장 책임자는 폴란드 출신 스탄케비치였다.

1900년 의화단 운동 당시 우리 가족은 하바롭스크로 떠나고자 했지만 당시 아세헤 정거장의 중국인 인부들과 조선인 인부들이 2~3일 동안 진행되는 큰 축제를 열어 가지 못했다. 당시 우리 가족은 열 개의 선물을 받았고 그 중 두 개는 만인산(萬人傘)이라는 우산이고 나머지 여덟 개는 기념품이었다.

우리 가족이 노동자들과 각별했던 이

유는 아버지가 했던 일과 관련이 있다. 당시 아버지는 조선인 노동자들과 중국인 노동자들을 공권력을 상실한 (임시) 중국 정부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했다. 임시 중국 정부는 노동자들이 혁명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체포해서 고문했다. 길거리에는 참수를 당한 머리들이 걸려 있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그들 동료의 석방을 부탁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중국 당국을 찾아가 중국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만약에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버지는 (자신이 통역으로 일하고 있던) 러시아군의 도움을 받아 철도국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 가족이 하바롭스크로 가는 열차를 탔을 때 몇 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기차길에 누워 길을 막으며 떠나는 것을 막았다.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표트르 세묘노비치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가 그곳에 남아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와 언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얼빈으로 갔다. 나머지 우리 식구들은 하바롭스크로 떠났다.

언니는 자주 아버지의 일을 대신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갈 때면 조선인 노동자들과 중국인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언니를 항상 신뢰했다.

나의 언니는 1905~1907년에 일어났던 1차 러시아혁명 시기에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며 볼셰비키들과 함께 혁명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당시 언니는 나고르노이가(街), 14번지 집에 살았다. 당시 우리들은 함께 거주했고 그리고 나는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우리 집에 다섯 명의 러시아인들이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언니와 함께 회의를 하며 모든 내용을 회의록에 적었다. 그들은 우리 집에 올 때나 갈 때나 각각 따로 갔는데 그 이유는 경찰한테 검문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그들이 왔다갔고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다. 그때 나는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증인들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들은 떠나갔다. 나는 곧바로 그들의 회의록과 종이들을 가슴팍에 숨겼다. 그리고는 책상에 교과서와 공책을 놓은 후 문을 열었다. 네 명의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나는 책상에 앉아 마치 수학 문제에 열중하는 모습을 취했다. 집을 뒤지고 우리 언니를 찾던 경찰들은 나까지 수색하려 했다. 그러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레프 페트로비치의 가족이고 여기 공부 하러 왔다. 그리고 2시에 학교에 가야하니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좋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우리 친척인) 레프 페트로비치(김병학)는 부자이며 또 러시아 당국의 저명하고 권위있는 사람이었다. 이 소리를 들은 한 경찰관은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 나갔다. 나는 곧장 ‘2번째 레츠키’ 역에 우리 언니를 숨겨주고 있는 러시아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가서 우리 언니에게 회의록과 문건들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줬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경찰관이나 우리 집을 감시하던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오케얀스카

야’역에서 모여 회의했기 때문이다.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집은 한인마을과 멀지 않은 마르코프스카야 17번지 집으로 이사를 갔다. 집 주인은 김병학이었는데 한 눈에 보기에도 중산층인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는 우리 사촌이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그 집에 어떠한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지 않았다.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구넷’과 ‘아르베스’ 상점을 파괴하고 불태웠다. 파업은 얼마가지 않았고 주동자들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집을 찾아와 수배당하고 있던 다섯 명의 동지들을 숨겨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언니는 어디론가 떠났고 다시 오지 않았다. 당시 우리 집에는 나의 삼촌, 우리 아버지의 막내 동생 니콜라이 세묘노비치가 있었다. 나는 삼촌에게 우리 언니의 당부를 전해 주었고 그는 동지들을 숨겨주는 것을 승낙했다.

우리 집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이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즈베리’라고 불리는 러시아인이었다. 삼촌은 그를 주방으로 불러 코냑으로 취하게 만든 후 이렇게 말했다 “낮에는 창고를 지키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그동안 당신은 쉬어도 된다.” 그러고는 언니의 동지들을 창고로 데려갔다. 삼촌은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 그리고 칠일 동안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다. 삼촌은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입힐 조선 전통 옷을 준비했다. 삼촌은 그들을 조선 옷으로 갈아입히고 중국 국경을 지나 조선의 국경 지역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아직도 그들을 기억하는데, 그들은 조선 전통 의상을 입었지만 날카로운 콧

날과 짙은 눈동자는 그들을 조선인처럼 보이게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나 역시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내가 태어난 시 넬리니코보 읍으로 이동했다.

러시아 1차 혁명 이후 극동 지방(수찬, 보시예트, 우수리스크)에는 많은 조선혁명 운동조직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조직들은 북조선 지역에서 활동하며 일본에 대항했다. 내가 언니를 다시 만난 곳은 포크롭스크 구역 니콜라이스크-우수리스크 주에 위치한 시세니코브의 집이었다. 그때 언니는 중국에서 나를 보러 왔다. 언니는 중국 산차거우 시를 자주 왕래했는데 언니의 말이 따르면 그곳에는 열네 명의 중국인 그리고 다른 혁명가들이 있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최괄울이라는 조선인이 와서 나의 언니가 물에 빠져 다리가 동상에 걸렸다고 전했다. 당시 언니는 폴타브카 읍에 러시아인들과 함께 있었다. 나의 남편 최행길(이반)은 폴타브카 읍으로 가 언니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언니는 우리 집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하며 머물렀다. 이 일은 1907년에 일어난 일이다.

알렉산드라는 동지들에게 자주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나의 남편이 중국으로 전했다. 이 시기에 나의 오빠 추프로프는 폴타브카 읍에서 행정 일을 보았다. 그는 집에 와서 언니에게 지역 관료들이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빨리 완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니가 집에서 떠난 후 다시 보지 못했다. 그리고 10년 후에 러시아 2월 혁명 이후 나는 우랄 숲에서 목재 작업을 하는 윤이학, 최윤욱 그리고 다른 20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나의 언니가 그곳에서 혁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언니는 조선 노동자들과 중국노동자들을 혁명에 참여하게 이끌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서 언니에 대한 일화를 들었다. A.P 김(스탄케비치)은 노동자들과 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정부가 그녀를 살해하려고 했다. 이 사실을 안 러시아 노동자들은 그녀를 수레에 놓히고 천을 덮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했다. 그 와중에 길에서 경찰들은 수레를 끌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 노동자들은 그녀가 회의 중이라 답했고 또 경찰들이 수레에 누구를 실었냐고 물었을 때 목재 차량에 깔린 노동자를 신고 간다고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은 언니를 구해 주었다.

1918년 가을, 나는 하바로프스크에 거주하는 오가이 바실리 바실리에비치(알렉산드라의 두 번째 남편)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서 나는 언니가 끝까지 혁명에 참여했고 1918년 적들에게 붙잡혀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1958년 5월 서명: 채 마리아 페트로브나

채 마리아의 이 같은 소중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라의 처형을 두고 고려인 사회에서는 많은 이설이 난무했다. 1918년 9월 25일은 공교롭게도 무오년 추석이었는데 수많은 이설은 후대 고려인들이 바로 이 점에 착안해 가 공해낸 이상화 작업의 결과였다. 그날 추석을 맞아 브라스밴드의 공연을 보러 시내의 한 공원으로 몰려든 수많은 하바롭스크 시민들이 우연히 사형집행을 목격했다느니, 혹은 아무르 강변의 한 절벽에서 처형당한 알렉산드라의 시체가 강에 떨어진 나머지 그날 이후 하바롭스크 시민들은 아무르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한동안 먹지 않았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는 추석과 사형, 선(善)과 악(惡) 등 인간 감정의 두 대척점을 대비시켜 알렉산드라의 죽음에 숭고함을 부여하려는 이상화였다. 이렇게 이상화된 일대기는 고려인 사회에서 연극 대본이나 오페라 대본으로 꾸며졌고 심지어 러시아 작가들 사이에서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의 목적은 사실의 왜곡에 있지 않았다. 그건 공포 그 자체였던 스탈린 시대를 통과한 고려인 스스로 민족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영웅을 열망한 결과였다. 이에 따르면 알렉산드라는 최후의 순간, 두 눈을 가린 수건을 벗어던진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죽을 자리는 내가 스스로 잡는다. 내가 금방 걸어 나간 열 세 걸음은 조선의 13도다. 조선의 후진들은 들으시오 그 발자국마다 레닌에게서 받은 공산주의의 꽃씨를 심으시오. 공산주의 만세, 조선독립 만세!”

하지만 이러한 장면이 사형을 집행한 울리넥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될 이유는 없다. 굴뚝을 통해 쓴 살같이 대기 속으로 빨려나가는 연기 처럼 진실은 망설이지 않고 출구를 찾는다. 안과 밖을 관통하며 지나가는 무엇. 그건 말로 다할 수 없는 알렉산드라의 생애에 깃든 또 하나의 무언의 드라마 마일지도 모른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알렉산드라는 우리 마음이 그리운 아름다운 영원의 세계에 여전히 살아 있고 우리 자신도 그곳으로 가는 여로 위에 있다.



3.1혁명 98주년 기념

“상징사진 전시회”

태극·무궁화·조선부채에

새겨진 상징사진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여성옥사 앞마당에서 장기 전시 중

시민과 함께한 “상징사진 전시회 제막”



「상징사진 전시」 제막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환호하는 본회 회원들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차례를 올리는 화윤문화원생들



상징사진 전시회에서 뉘전춤을 헌사하고 계시는 양혜경선생



2017년 광복 72주년

“3.1혁명에서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대행진

촛불시민광장 ~ 서대문형무소까지 2.4km 대행진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추모대행진대열이 독립문을
지나고 있다



8월의 열더위를 이기고
옥사담벽을 따라 행진하고 있는
행사 참가자들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대행진
기념식 <촛불광장 8.15>



기념식에서 애국가 제창하는 참가자들



초상화 대행진을 준비하는 작가들
본회 회의실 2017. 7. 10

| 2017 가을 기획강좌 |

관심을 집중시켰던



여성운동가 역사학회 기획 강좌

관심을 취할 뻔했던 항일여성들의 숨겨진 이야기들



제1강 5/11(목)
모스크바의 붉은 별, 주세죽 (1901~1953)
강사: 손혜준
《모스크바의 붉은 별》, 《대한명 초라귀여》 등 저서, 건국대학교 미디어역사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겨레신문'을 창간한 인물



제2강 5/22(목)
의업단에서 조선의용대로의 혈한 진진, 박차경 (1910~1944)
강사: 안계성
《명성 포로기》, 《대한명 경전》, 《김계백전 한국현대사》 등 저자. 국가보훈처 훈장 수장가



제3강 6/1(목)
한국 최초의 불세비키 혁명가, 김 알렉산드라 (1885~1918)
강사: 한영준
《소년 김 알렉산드라》 저자. 시인, 한국인일보 발행부장, 러시아 국립 모스크바에서 역사학과 박사



제4강 6/8(목)
태항산의 백마 탄 여장군, 김명시 (1907~1949)
강사: 한영준
《대문 외 산간의 여자》, 《대한명국사》 등 저서. 상동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경북체육단 권업추진위원 겸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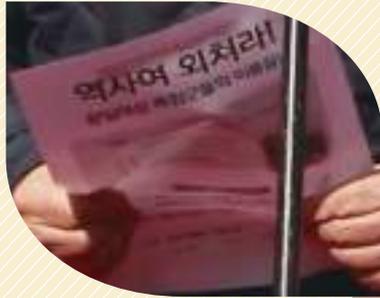
제5강 6/15(목)
1932년 상해 홍커우 의거의 숨은 기획자, 이화림 (1905~1999)
강사: 박경철
《이화림 회고록》, 《홍커우 의거에 투영된 저항의 가치》 저자. 중앙연구원, 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제6강 6/22(목)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조선의 불문타이, 허정숙 (1908~1991)
강사: 한영준
《여성의 의정론》, 《불문타이》 저자. (사)여성운동가 역사학회 기획위원장, 순천대학교 연구자

- 일 시 : 2017. 5. 18 ~ 6. 22 8주강좌 (매주(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서대문구 통일로 251길 독립관 지하 1층 (독립분관원)
- 참가비 : 무료 (선착순 접수 50~60명)
- 사전전화 신청접수 : 02-924-0660 010-2937-7138

되풀이보는 2017년



안사람 의병가

“아무리 왜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쳐지면 왜놈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사랑 모를쏘나
우리도 나가 의병하러 나가보세 (중략)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로다
우리안사람 만만세로다.”

윤희순지사 작사



2017 4차 총회를 마친 회원들



2017. 3. 31
대광중학교 역사 동아리 모임 방문



2017. 9
이사, 기획위원 연석회의



윤희순지사 다짐글

역사를 모르면
민족의 과거가
미래가 없다

3·1혁명 100주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일시 : 2018. 2. 23(금) 오전 10시~12시 30분
장소 : 국회대회의관 소회의실(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 (사)한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국회의원 감창열, 국회의원 유승희



3.1 혁명 100주년 기념을 준비하는
세미나를 마치고...



본회 정기총회



2월 8일 국회대회의실에서 2.8 독립선언 기념 강연에 참석하고 계시는
(애국지사 최회장, 이영수, 여성독립운동가 오희옥,
상해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종찬))

3.1혁명 99주년 기념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야외 초상화 전시회·기념공연·합창

- 2018. 3. 1

대한 독립만세!



김희선 회장 기념사



대회 준비 자원활동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



99년전 그날의 합창



대한독립선언문 제창

“오늘 그들 여기에”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3. 1~3. 24)

추모헌공차례를 올리고 있는
화운문화원 박남식 원장과 회원들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야외추모전시회 관람한
정세균 국회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야외추모전시회 관람한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



3.1 대한독립선언서보다 한달이나 앞서 발표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슬프고 억울하다 우리 대한동포시여 우리나라의 반만년 문명역사와 이천만 신성민족으로 삼천리 강토를 속히 자존할만 하거늘 침략적 야심으로 세계의 공법 공리를 무시하는 저 일본의 추세적 만성으로 조국의 흥망이해를 불고하는 역적을 협동하여 압박수단으로 형식에 불과한 합방을 성립하고 제반 음독한 정치하에 우리 이천만 형제자매가 노예와 희생이 되어 천고에 씻지 못할 수욕을 받고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여 스스로 멸망할 함정에 갇혀서 하루가 일년같은 지리한 세월이 십여년을 지났으니 그동안 무한한 고통은 다 말할 것 없이 우리 동포의 마음 속에 품은 비수로서 징계할 바로다 필부함원에 오월비상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수천만 창생의 억울 불평한 애소를 지공무사하신 상제께서 통촉하심이 없으리오 고금에 없는 구주대전란의 결국에 민족적 주의로 만국이 평화를 주창하는 금일을 당하여 감사하신 남자사회에서 처처에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 만세 소리에 엄동설한의 반도 강산이 양춘화풍을 만나 만물이 소생할 시기가 이르렀으니 아무쪼록 용력 우에 일정의 용력을 더하고 열성 중에 일도의 열성을 더하여 유시유종하심을 혈성으로 기도하는 바오며 우리도 비록 규중에서 생활하여 지식이 몽매하고 신체가 연약한 아녀자의 무리나 국민됨은 일반이오 양심은 한가지라 용력이 절등하고 지식이 고명한 영웅 달사도 뜻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이 이세상을 마친지 허다한 것만은 비록 지극히 몽매한 필부라도 성력이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소소한 천리라 우리 여자사회에서도 동서를 물론하고 후생의 모범될만한 숙녀현원이 허다하겠만은 특별히 금일에 우리의 본받을 선생을 들어 말하면 서양 사파벌(스파르타)이라하는 나라에 사라라 하는 부인은 농가에 출생으로 아들 여덟을 낳아 국가에 받쳤더니 전장에 나가 승전을 하였으나 불행이 여덟 아들이 다 전망한지라 부인은 그 참혹한 소식을 듣고 조금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춤추며 노래하여 가라대 '사파달 사파달아 내 너를 위하여 여덟 아들을 낳았다' 하며 이태리에 메리아(마리타)라하는 부인은 청누 출신으로 이태리가 타국의 절제(압제)하에 있음을 분개히 여겨 재정방침을 연구하며 청년 사상을 고취하여 백절불회하는 지기와 신출귀몰하는 수단으로 마침내 독립 전쟁을 지시하였으나 불행하여 열혈한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영별할때에 감은 눈을 다시 뜨고 '제군 제군아 국가 국가'라는 비장한 유언에 삼군의 격렬한 피가 일시에 끌어 죽이로써 맹새하여 이태리의 독립이 그 날로 되었으며 우리나라 임난 때에 진주에 논개씨와 평양에 화월(계월향)씨는 또한 화류계 출신으로 용력이 무쌍한 적장 청정과 소섭을 죽여 국가를 다시 북돋은 공이 두 분 선생의 힘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니 우리도 이러한 급한 때를 당하여 겁나의 구습을 파괴하고 용감한 정신을 분발하여 이러한 여러 선생을 본받아 의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력의 방패와 열성의 비수를 잡고 유진무퇴하는 신을 신고 일심으로 일어나면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이 하감하시고 우리나라 충훈열백이 명중에도 도우시고 세계 만국의 공론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는 아무 자저할 것 없으며 두려워 할 것도 없도다 살아서 독립기하에 활발한 신국민이 되어보고 죽어서 구천지하에 이러한 여러 선생을 좇아 수고함이 없이 즐겁게 모시는 것이 우리의 제일 의무가 아닌가 간장에서 솟는 눈물과 총곡에서 나오는 단심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대한동포에게 엮드려 고하오니 동포 동포여 때는 두 번 이르지 아니하고 일은 지나면 못하느니 속히 분발할지어다. 동포 동포시여 대한독립만세



기원 사천이백오십이년 이월 일
 김인종 김숙경 김옥경 고순경 김숙원 최영자 박봉희 이정숙 등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여수감자 현황과 특징¹⁾

박경목(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1. 머리말

일본제국주의의 대한제국 식민지화가 가시화 되었던 1908년 무렵 일제는 항일세력에 대한 대중격리를 위해 전국에 자유형을 집행하는 근대감옥을 개소하기 시작하였다.

1908년 4월 서울, 대구, 평양의 대도시와 공주, 함흥, 해주, 진주, 광주, 주요도시 8개소에 감옥이 개소되어 본감제(本監制)가 시행되었고, 그해 11월 '분감설치규정'에 의거하여 각 본감 산하에 인천, 춘천, 청주, 경성(鏡城), 원산, 의주, 부산, 전주의 지방 주요 소도시 8개소에 분감(分監)이 개소되어 전국에 총 16개의 감옥이 설치, 운영되었다.²⁾ 강제병합 후에는 식민지 경영이 공고화되면서 독립운동가가 증가하자 지속적으로 감옥의 설치가 늘어 1937년에 이르르면 일반형무소 25개소와 소년형무소 3개소 총 28개소의 감옥이 설치, 운영되었다.³⁾

식민지 지배 속에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죄' 가운데 상당수는 소위 정치, 사상범인 독립운동의 '죄'였다. 일제는 이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통해 식민지의 원활한 경영과 조선인에 대한 억압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일제는 식민지 감옥에 수감된 자들에 대해 다양한 신상기록을 남겼고, 이것을 감옥 내에서의 전향작업에는 물론 출감 이후에도 보호관찰, 예방구금시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신상기록은 수감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였던 <지문원지>, 수형인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를 수록한 명적표, 집행지휘서, 판결문, 지문(指紋),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상 및 신체특징표, 작업표, 행장표, 신상표, 건강진단표, 진료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형자신분장>, 가출옥을 허가할 사람의 구신(具申 : 본적, 입감전 주소, 신분, 직업, 이름, 생년, 죄명, 범죄횟

수, 형명, 형기, 형기의 기산 및 종료일, 형기 1/3에 상당하는 날짜, 가출옥을 허가하는 사유, 출옥 후의 보호자의 이름, 직업, 주소, 생활의 상태 및 보호자와의 관계, 출옥 후 생계 등)과 집행지휘서, 판결문, 신상표, 행장표, 전향서, 누진독점원부가 수록된 <가출옥관계서류> 등이 있다.⁴⁾ 이같이 수형과정에서 생성된 기록물 외에 경찰서에 검거된 직후와 감옥으로 이감된 직후 작성되었던 기록으로 <수형기록카드>가 있다.

수형기록카드에는 피체자 혹은 수감자가 체포될 당시나 수감생활 모습 그대로의 복장으로 찍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수감생활의 생생함을 볼 수 있다. 또 이름, 본적, 출생지, 거주지, 수감 날짜, 형량, 수감감옥 등의 상세정보가 카드 한 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정보가 독립운동가 파악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자료집으로 편찬되었다.⁵⁾

한편, 지난 2013년 4월 서대문형무소 내 여성옥사를 원형복원하고 전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감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많이 아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1차적 자료로 접근한 것이 바로 수형기록카드이다. 이 카드에는 그동안 이름이 있어도 없었던 무명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성들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목숨을 위협하는 추위와 더위, 질병에 맞서며 수감생활을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여성 수형기록카드 분석을 통해 그간 남성위주의 독립운동 연구경향에 탈피해 여성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유명인 위주, 운동사 위주의 연구를 지양하고 알려지지 않은 일반 대중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료 통계적인 방법론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들에 대한 독립운동의 양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의 방법은 수형기록카드에 제공된 다양한 신상 정보를 데이터화 하고 그 데이터를 하나의 단위 자료로 구축하여 나이, 출

1) 본 발표문은 《한국근현대사연구》6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에 수록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2) 박경목,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경성감옥 설치와 본감, 분감제 시행」, 《한국근현대사연구》46, 2008, 92쪽, 98-99쪽.

3) 조선총독부법무소 행정과편, 『조선의 행정제도』, 치형협회, 1938, 1쪽 '조선각형무소배치도'.

4) 김정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가출옥관계서류에 대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4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참조.

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9, 1993.

신지, 거주지, 형량 등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정렬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소홀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과 향후 이들에 대한 연구진작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여성 수감 감옥

일제강점기 식민지 감옥은 대부분 남성과 여성을 모두 수감하였으나, 각 감옥별로는 수감대상자의 성별과 형기에 따라 구분하여 수감하였다. 그중 여성들이 수감되었던 감옥은 형기 1년~10년 사이의 여성은 대전형무소.광주형무소.함흥형무소 3개소에, 수형기간에 상관없이 유기 또는 무기의 모든 여성은 서대문형무소.평양형무소.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형기 1년 미만의 여성은 나머지 감옥에서 수감되었다. 한편, 서울의 경성형무소를 비롯하여 몇몇의 지소와 인천소년형무소, 개성소년형무소, 김천소년형무소에는 여성을 수감하지 않았다.⁶⁾

서대문형무소.평양형무소.대구형무소 3개소의 감옥에서 수형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을 수감했던 이유는 서울.평양.대구에 복심법원이 소재하여 피고인이 3심까지 항소하면 복심이 있는 해당 지역의 형무소로 이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미결수에서부터 여타의 유기형은 물론 무기.사형수까지 수감되었다. 따라서 위 3개소의 감옥에는 타 감옥에 비해 많은 여성들이 수감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은 여성을 수감하였던 곳은 서울 서대문 현저동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였다. 1937년의 전국 감옥 내 수감인원 현황을 보면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전국 감옥 수감자 수 / 1937년 7월 기준】⁷⁾

연번	감옥명	여성	전국 여성수감자 대비 비율	남성	합계	전국 재감자 대비 비율
1	경성형무소	미수용		1,151명	1,151명	5.93%
2	서대문형무소	193명	29.82%	2,268명	2,461명	12.69%
3	- 춘천지소	4명		303명	307명	
4	공주형무소	62명	9.58%	658명	720명	3.71%
5	- 청주지소	3명		358명	361명	
6	대전형무소	미수용		1,071명	1,071명	5.52%
7	함흥형무소	46명	7.10%	1,042명	1,088명	5.61%
8	- 원산지소	4명		396명	400명	
9	청진형무소	27명	4.17%	815명	842명	4.34%
10	평양형무소	115명	17.78%	1,128명	1,243명	6.41%

6)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민국 교정사』 1, 2010, 289-290쪽.

7) 조선총독부법무국행정과편, 『조선의행정제도』, 치형협회, 1938, 21~22쪽, 기결수, 미결수 및 노역장 유치자 등 모두 포함.

8)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7년』, 1939, 360쪽, 1937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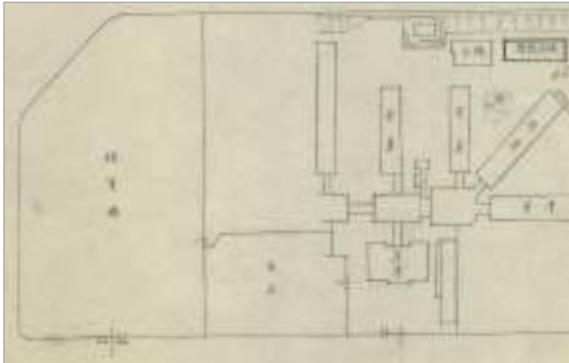
연번	감옥명	여성	전국 여성수감자 대비 비율	남성	합계	전국 재감자 대비 비율
11	- 진남포지소	1명		150명	151명	
12	- 금산포지소	미수용		136명	136명	
13	신의주형무소	16명	2.47%	1,115명	1,131명	5.83%
14	해주형무소	7명		565명	572명	2.95%
15	- 서흥지소	미수용		134명	134명	
16	대구형무소	75명	11.59%	1,269명	1,344명	6.93%
17	- 안동지소	2명		211명	213명	
18	부산형무소	6명	0.92%	952명	958명	4.94%
19	- 마산지소	1명		291명	292명	
20	- 진주지소	6명		307명	313명	
21	광주형무소	39명	6.07%	719명	758명	3.91%
22	- 소록도지소	2명		47명	49명	
23	목포형무소	21명	3.24%	549명	570명	2.94%
24	전주형무소	10명	1.54%	631명	641명	3.30%
25	- 군산지소	7명		541명	548명	
26	인천소년형무소	미수용		509명	509명	
27	개성소년형무소	미수용		713명	713명	9.93%
28	김천소년형무소	미수용		704명	704명	
합계		647명	3.3%	18,029	19,380명	

1937년 7월 전국 감옥 재감자 19,380명 가운데 여성은 647명으로 전체 19,380명 대비 3.3%의 비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서대문형무소에는 여성이 193명 수감되어 전체 여성 재감자 647명 대비 29.82%를 담당하였다. 서대문형무소 내 남녀 재감자 총 2,461명 대비 여성수감자가 7.8%를 차지하여 전국 감옥에 수감되었던 여성수감자 비율(3.3%)과 비교하여 보면 서대문형무소의 여성수감자 비율은 4.5%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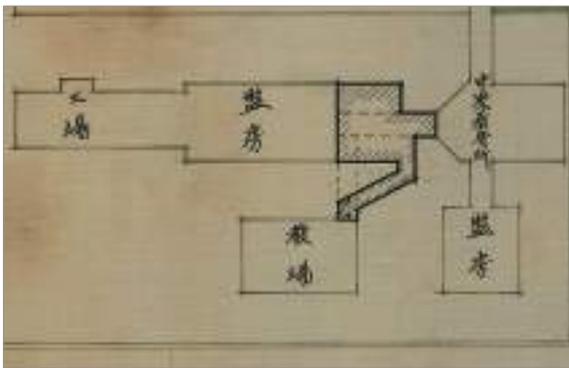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수감되었던 것에 비례하여 여성수감자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감되었고, 전국 재감자 대비 여성 비율(3.3%)에 비해서도 서대문형무소 내 재감자 대비 여성 비율(7.8%) 많이 높았다. 이에 따라서 감옥 관리인원도 343명으로 전국 형무소 총 관리인원 2,918명 대비 11.7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였다.⁸⁾ 이 중 남자 간수는 253명, 여자 간수는 8명이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전국 형무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근무인원과 수감인원이 가장 많았던 대표 감옥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서대문형무소에 여성들이 수감되었던 구역은 남성 수감 구역과 별도로 분리되었고 수용 옥사는 총 2개동이 있었다.

【서대문형무소 배치도】⁹⁾



194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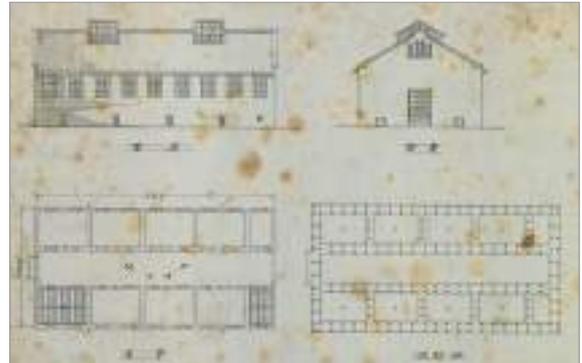


여옥사 배치도(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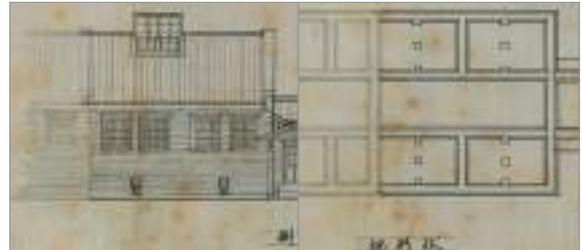
2개 동의 여성옥사는 설립연도가 정확치 않으나 당시 설계도면을 검토해 보면 도면의 제목에 '서대문감옥'이라는 표현이 있어 서대문형무소가 '서대문감옥'으로 불리던 시기인 1912년~1923년 사이이고, 1919년 후 수감기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1919년 이전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결감은 초기 144.5㎡(43.79평)에 큰 감방(8.74㎡;2.65평) 8개와 작은 감방(4.08㎡;1.23평) 2개로 구성되었다가 1936년 증축되어 큰감방 4개(크기 위와 동일)가 늘어났다. 미결감(구치감)은 79.9㎡(24.21평)에 큰 감방(크기 위와 동일) 2개와 작은 감방 6개로 구성되었다. 총 큰 감방 14개(122.36㎡;37.1평)와 작은 감방 8개(32.64㎡;9.8평) 합쳐 155㎡(46.9평)의 수용공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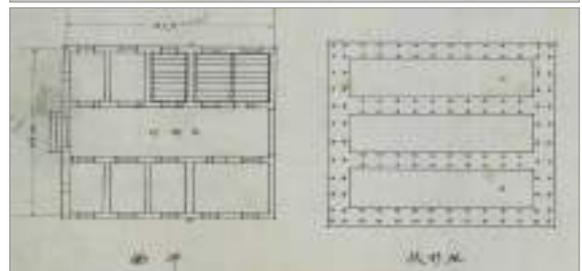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도면】



서대문감옥 여감방 신축설계도(1910년대)



서대문형무소여감방증축기타설계도(1936)



서대문감옥 여구치감방 신축설계도(1910년대)

1937년 서대문형무소의 여성 수감자가 193명이므로 평당 수용밀도는 4.1명이나 되었다. 2.65평 남짓의 큰 방에 10~11명, 1.23평의 작은 방에 5명이나 수용되었다. 1930년대 전국 감옥의 수용밀도가 1평당 3.12명에 비하면 여성의 수용밀도가 1명이 많고, 일본 감옥의 수용밀도가 1.19명 이었던 것에 비하면 조선

9) 이하 도면 국가기록원 소장.

10)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커니즘 연구-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연세대 박사학위, 1999, 113쪽.

여성들은 1평당 3명이나 많은 밀도로 수감되었다.¹⁰⁾ 더욱 심각한 것은 1938년이 되면서 여성 수감인원이 211¹¹⁾명으로 18명이 늘어났고 식민지 말기로 갈수록 수감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감옥의 열악함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¹²⁾ 식민지 권력의 폭력적인 수감실태가 점점 심해진 것이다.

3. 연령과 출신지역

1) 연령

여수감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출생 연도별 인원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대문형무소 여수감자 출생 연도별 분포】

출생연도	인원	비율
1870년대	3명	1.66%
1880년대	5명	2.77%
1890년대	8명	4.42%
1900년대	66명	36.46%
1910년대	82명	45.30%
1920년대	8명	4.42%
미 상	9명	4.97%
합계	181명	100%

수형기록카드가 작성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1919년 3.1이후임을 감안하고, 1930년대 들어서 수감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으로 보아 위 표에서 보이는 1900년대 생(生)과 1910년대 생이 전체대비 8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 중 1900년대 생은 주로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1920년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 1930년 광주학생운동 지지 서울 시내 여학생 만세운동 등으로 수감된 인원이었다.¹³⁾ 1910년대 생과 1920년대 생 대부분은 1930.4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에 참여하였던 인원이다. 한편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고 이에 거부하였던 여성들 중 10여 명이 1940년대에 수감되었는데 이들 중 1880년 생이 1명, 1890년대 생이 3명으로 주로 연장자들이 많이 수감되었다.

그러면 여성들의 수감 당시 이들의 나이는 어떠한가?

최연소 수감 나이는 15살로 3명이 있었는데, 소은명(79)과 왕중순(100)은 1920년 3월 배화여학교 만세운동으로, 임순득(138)은 1931년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피체되었다. 최고령 수감 나이는 66세에 수감되었던 황학열(179)로 1939년 신사참배 거부 혐의로 피체되었다.¹⁴⁾ 그를 제외한 60대 수감자는 2명, 50대 수감자는 4명인데 이중 3명은 신사참배 거부, 3명은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다.

이외 40대 수감자 7명, 30대 수감자 22명, 20대 수감자 72명, 10대 수감자 64명으로 주로 10대와 20대들(181명 대비 136명 : 75.14%)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활발히 나섰음을 알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 여수감자 수감 당시 연령대】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상	합계
인원	64명	72명	22명	7명	4명	3명	9명	181명

수감자들의 직업도 연령대와 관련이 있다. 10대인 경우 학생, 20대인 경우 여공(女工)이나 회사원(給仕)들이 대다수였다. 직업이 기재된 카드 총 95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학생으로 45명, 그 다음 공장 노동자와 회사원 26명 이었다. 이외 24명은 간호사(5명 : 김순호(30), 노순경(49), 이신도(120)¹⁵⁾, 최승원(163), 함귀래(172)¹⁶⁾, 교원 및 교생(7명 : 고강순(8), 김경애(11)¹⁷⁾, 남궁경순(45), 오일순(97)¹⁸⁾, 김마리아(18), 김의순(37), 노함풍(50)¹⁹⁾, 기자(2명 : 허정숙(175)²⁰⁾, 수판수혜(181)²¹⁾, 목사(1명 : 신관빈(85)), 선교사.전도사(2명 : 계화성(7), 박정선(68)²²⁾, 사행상[系

11)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민국 교정사』 I, 2010, 288쪽 재인용(《치형》17, 1939, 96쪽).

12) 박경목, 「1930년 서대문형무소의 일상」, 《한국근현대사연구》6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88쪽.

13) <경성부내 여학생들이 광주학생운동>, 《동아일보》1930. 2. 16.

14) <등대사사건 관계자 검거에 관한 건>, 경기도 경찰부, 1939. 7. 3. <후계 등대사사건 검거에 관한 건>, 경기도 경찰부, 1941. 7. 10.

15) 김순호, 노순경(노백린 처녀), 이신도 : 세브란스 병원 근무

16) 강원도립의원 근무.

17) <간도 동흥중학교 교원 김경애 석방>, 《동아일보》1929. 11. 23.

18)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 발각 건>, 서대문경찰서, 1934. 2. 7.

19) <조선공산당.고려공산당청녀회 검거>, 경기도 경찰부, 1928. 10. 27.

20) <근우회 제1회 중앙위원회 임원개선>, 《동아일보》1928. 7. 18. <허정숙 신문조사>, 경성지방법원, 1930. 2. 3.

21) <조선반제동맹 경성지방 준비위원회>, 동대문경찰서, 1933. 3. 9. <토요연구회 사건판결>, 《사상월보》, 1933. 3. 15.

22) <박정선 조사>, 경성지방법원, 1919. 12. 10.

行商, 2명 : 강간난(1), 안순이(90)], 직물상[2명 : 김씨(44), 박옥희(65)], 농업[3명 : 김성남(25), 김성수(28), 임명애(137)] 등으로, 다양한 직종의 여성들이 일제에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하다가 수감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일부 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토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한국독립운동의 주요 특징인 '참여계층의 다양성', '운동방법과 노선의 다양성'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2) 출신지역

이들의 출신 지역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대문형무소 여수감자 본적지 분포】

지역	인원	비율	지역	인원	비율
경기도	34명	18.78%	황해도	18명	9.94%
강원도	18명	9.94%	평안남도	4명	
서울	26명	14.36%	평안북도	2명	
충청남도	8명		함경남도	14명	7.73%
충청북도	5명		함경북도	18명	9.94%
경상남도	10명	5.52%	해외	3명	(러시아 2명, 일본 1명)
경상북도	7명				
전라남도	2명				
전라북도	3명				
제주도	3명				
합계	113			59명	
미상	6명				
총계				181명	

서대문형무소가 서울에 위치하여 경기, 강원, 서울 출신자들 78명(181명 대비 43.08%)이 수감되었던 것은 지리상 연관성이 있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함경남북도 출신 32명(17.68%)과 황해도 출신 18명(9.94%)이 수감(합 49명 : 27.75%)되었던 것은 특이한 점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충청남북도(13명, 7.18%)나 경상남북도(17명, 9.39%) 출신(합 30명 : 16.57%)보다 수감비율이 11% 이상 높은 수치이다. 함경도나 황해도의 지역적 성향의 영향이었던 것이지, 이는 추후 독립운동가 개개인 전반에 대한 출신 지역 정보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여성 인사들의 직업과 수감일자, 출신지 등의 데이터를 순차로 정렬하여 상호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181명의 출신지역과 수감일자를 정렬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아래 표는 직업이 학생인 사람들을 먼저 추려내고 다음으로 검거일, 본적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공통적 특징이 보이는 17명을 추릴 수 있다. 이들 17명은 1930년 1월 15일 서울시내에서 광주학생운동 지지를 위해 펼쳤던 '서울시내 여학생 만세시위 운동'으로 수감되었던 학생들이었다.²³⁾

【서울시내 여학생 만세운동 관련 수감자】²⁴⁾

연번	부록번호	이름	생년	검거일	직업	본적지
1	147	조금옥	1912년	1930년 1월27일	숙명여고보4년생	경기 개성
2	165	최윤숙	1912년 9월22일		학생	경기 이천
3	16	김덕순	1913년 2월8일		학생	경남 마산
4	161	최복순	1909년 1월13일	1930년 1월15일	이화여고보4년생	경남 부산
5	89	안갑남	1908년	1930년 1월18일	동덕여고보4년생	전남 보성
6	40	김진현	1911년	1930년 1월16일	이화여고보4년생, 교생	제주도
7	53	민금봉	1913년 1월4일	1930년 2월21일	이화여학교생도	충북 청주
8	167	최현수	1912년	1930년 1월15일	이화여고보3년생	함남 원산
9	93	안임순	1912년		이화여고보3년생	함남 함흥
10	171	한정희	1910년	1930년 1월15일	학생	함남 함흥
11	57	박선숙	1909년		학생	함남 함흥
12	107	윤옥분	1913년	1930년 1월15일	이화여고보3년생	함북 경성
13	119	이순옥	1913년	1930년 1월17일		함북 경성
14	166	최정옥	1911년 11월24일		학생	함북 경성
15	82	송계월	1913년	1930년 1월22일	여자상업3년생	함북 북청
16	123	이영자	1912년 11월12일		학생	황해
17	150	조숙현	1914년 7월5일		학생	황해 서흥

23) <여학생만세사건의 27명 필경 송국>, 《중외일보》1930. 1. 31.

24) <시내 여학교 만세운동 검거자 명단>, 《동아일보》1939. 1. 31.

25) <박선숙 신문조서>, 서대문경찰서, 1930. 1. 24.

이들 중 다수는 이화여고와 동덕여고 출신들이었다. 한정희(171), 박선숙(57)은 동덕여고²⁵⁾, 최현수(167), 안임순(93), 윤옥분(107), 조숙현(150)은 이화여고, 송계월(82)은 경성여자상업고(현, 서울여상) 학생이었다. 본적지가 함남, 함북, 황해 등 북쪽지역 학생이 10명으로 총 17명 가운데 59%를 차지한다. 181명의 여성 수감자 중에서도 함경도와 황해도의 비율이 높았던 것처럼, 동일 사건의 참여자들 중에서도 단연 위 출신지역 인사의 비율이 높았다.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높았던 것은 당시 만세운동의 준비과정이 비밀리에 전파되는 특성으로, 학생의 경우 주로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방 안에서 은밀히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²⁶⁾ 따라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같은 고향 출신들이 상호 유대를 통해 만세시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유추 할 수 있다. 이들의 거주지 또한 해당 학교 기숙사의 주소로 되어 그 정황을 뒷받침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지역적 네트워크-지연(地緣)-가 일제에 저항하는 단결력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본적지 외에 거주지 정보를 통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수형기록카드가 남아있는 181명을 거주지별로 분류하여 정렬하면 아래 표와 같이 거주지가 같은 경우가 4건 보인다. 그리고 거주지가 같은 이들의 검거일자과 직업을 살펴보면 그 또한 같은 날짜 같은 직업임을 볼 수 있다. 즉, 거주지가 같은 인물들은 동일한 사건에 연계되어 검거, 수감된 것이다.

거주지가 신설동 132-46으로 기재되어 있는 최화순(168)과 신명예(86), 김명순(20), 박소순(53) 4명은 직업이 모두 여공(女工)이었고 1934년 5월 20일 동시에 검거되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추적해 보면 이들은 소위 '조선내 적화공작사건'에 관계되어 함께 수감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²⁷⁾

【동일거주지 분류】

	부록 번호	이름	생년	직업	검거일	거주지
1	168	최화순	1915년	朝鮮女工	1934년 5월20일	경성 신설 132-46
	86	신명예	1915년	여공	1934년 5월20일	경성 신설 132-46
	20	김명순	1917년		1934년 5월20일	경성 신설 132-46
	59	박소순	1915년	여공	1934년 5월20일	경성 신설 132-46

26) <최현수 신문조서>, 서대문경찰서, 1930. 1. 19.

27) <경성제국대학 교수 삼택녹지조를 중심으로 한 조선내 적화공작사건 검거에 관한 건>, 경기도 경찰부, 1934. 8. 31.

28) 이병희 증언.

	부록 번호	이름	생년	직업	검거일	거주지
2	136	이효정	1914년 6월21일		1935년	경성 청량88
	114	이병희	1918년 1월14일		1936년 12월	경성 청량88
3	128	이운향	1878년 11월1일		1940년	경성 화동47
	34	김완홍	1881년 12월6일		1940년	경성 화동47
4	88	심재순	1921년 7월13일	여공		경성 휘경189
	54	민인숙	1919년 11월14일	여공		경성 휘경189
	61	박순임	1919년 2월22일	여공		경성 휘경189
	155	차양순	1920년 11월26일	여공		경성 휘경189
	143	정갑복	1922년 8월14일	여공		경성 휘경189
	178	황영임	1921년 3월24일	여공		경성 휘경189
	158	최광순	1916년 5월22일	여공		경성 휘경189
	130	이정남	1919년 3월13일	여공		경성 휘경189
156	채정희	1921년 10월26일	여공		경성 휘경189	

이병희(136)와 이효정(114)의 경우 이재유의 지도를 받으며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효정이 먼저 검거되고 1년여 후에 이병희가 검거되었다. 그럼에도 주소지가 청량리 88로 같은 것은 이들이 고종사촌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²⁸⁾

화동 47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이운향(128)과 김완홍(34)은 신사참배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등대사 사건으로 수감된 인물이다. 이들의 거주지 화동 47번지가 해당 종교의 교회였는지 일반 가정집이었던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종교적 활동을 같이 한 사람들의 모임장소로 볼 수 있다.

동일 거주지가 가장 많이 보이는 휘경동 189번지는 심재순(88), 민인숙(54), 박순임(61), 차양순(155), 정갑복(143), 황영임(178), 최광순(158), 이정남(130), 채정희(156) 총 9명의 인물이 같은 주소지를 썼고, 이들의 직업은 모두 공자 노동자였다. 이들의 검거일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수형기록카드에 붙인 사진 촬영 날짜가 모두 1941년 6월 24일로 되어있어, 1941년 6월경 검거되었다가 함께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던 것이다. 검

거 당시 이들의 나이는 20대 초반 ~ 10대 후반의 어린 여공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박순임(61)은 1941년 11월 12일 출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최광순(158)은 1942년 2월 5일, 민인숙(54)은 같은 해 3월 2일, 나머지 6명은 같은 해 3월 6일자로 출소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상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1930년대 불어 닳친 공산주의자, 노동운동가 검거 열풍에 의한 여파로 1941년 수감된 것 같다. 기록상 이들의 거주지가 동일했던 것은 직업이 모두 '여공'이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공장의 기숙사 주소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본 데이터를 활용한 공통요소를 찾아 접근해 보면 수형기록카드는 뜻밖의 새로운 사실을 전해준다. 이를 토대로 상세한 개개인별 자료조사가 수반 된다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행적과 활동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공장기숙사 터 추정지】



현,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32-46번지 일대(신설동역 주변)



현,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89번지 일대(회기역 인근)

3. 특징과 형량

1) '사진 보존원판' 번호를 활용한 여수감자 특징 분석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 수감자들 가운데 수형기록카드가 남아있는 181명의 인물들은 죄목이 치안유지법위반(99명), 보안법위반(48명), 출판법위반(1명)이 148명으로 81.7%가 소위 '정치범' 또는 '사상범'이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가총동원법 위반이 17명으로 많은 숫자를 보인다. 나머지는 살인사체유기 1명, 미상 10명, 수배자 5명 이었다. 이들의 활동내용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이들의 '죄'가 일제의 식민지배에 반(反)하는 치안유지법위반 및 보안법위반 등 이므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였던 독립운동의 '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 181명에 대해 수형기록카드에 기록된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방법론으로 착안한 것이 바로 수형기록카드 앞면에 적혀있는 '보존원판' 번호의 활용이다. 이것은 사진을 촬영하고 그 원판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인데, 사진 원판에 매긴 번호일 뿐만 아니라 수형기록카드를 순서대로 정리하기 위해 매겨 놓았던 일련번호로도 쓰였다.

이 일련번호가 수형기록 카드 양식에 공식적인 기재 항목으로 반영된 시점은 1926년부터이다.²⁹⁾ '保存原板()第 號'의 형식으로 수형기록카드 앞면 하단에 게재되어 있다. 일제가 1925년 5월 '치안유지법'의 시행을 기점으로 소위 '사상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함에 따라 수감인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카드에 연번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26년 이전의 카드에도 연번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해진 항목이 아니라 사진의 원판유리에 직접 기재하였거나, 카드의 빈 공간 사이에 임의로 연번을 기입한 흔적이 보인다. 즉, 수형기록카드 양식 B가 사용되었던 시점에서, 기존 것은 소급하여 연번을 정리해 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1명의 카드를 '가나다'순이 아닌 사진 보존원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첨부한 【부록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³⁰⁾ 181명의 카드 정보를 한데 모아 놓고 보니 그 일련번호에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29) 위 수형기록카드 양식 B형.

30) 부록 2.【서대문형무소 여수감자 수형기록카드 사진 보존원판 번호순 배열】참조. 이후 사진번호라 칭함.

【사진 보존원판 번호 기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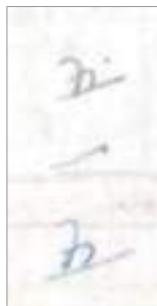
김순호 카드



사진 원판에 번호 기재



이수희 카드



카드 빈공간에 번호 기재



김영희 카드



카드에 공식으로 항목 기재

【부록 2】에 의하면 첫째, 수형기록카드가 남아있는 여성 수감자는 서대문형무소에 1919년 4월부터 입감되기 시작하여(어윤희(95))³¹⁾ 1944년 8월 경 까지 입감(백선옥(74))되었다. 수형기록카드의 가장 빠른 사진번호는 366번(김순호(30))이고, 가장 마지막 사진번호는 65,036번(백선옥(74))으로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 최소 65,000여 이상이 1919년~1944년까지 수감되었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사진번호는 여성과 남성을 분리한 것은 아니고 함께 연번을 매겨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진번호를 통해 연대별 수감인원과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1920년대는 사진번호 366번~9188번(강정희(4))까지로 약 10,000여 명의 인원이 수감되었고, 1930년대는 사진번호 11,548번(이영자(123))~42,378번(한계순(169))번까지 약 30,000여 명이 수감되었다. 1920년대에 비해 1930년대는 수감인원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식민지 경영이 지속될수록 일제의 소위 ‘정치.사상범’-독립운동가-에 대한 감시와 탄압의 결과가 수감자의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다. 1940년대는 1945년까지 5년간 사진번호 44,662번(김성녀B(27))~65,036번(백선옥(74))까지 약 20,000여 명이 수감되었다. 1930년대 10년간 30,000여 명이 수감되었던 것에 비해 1940년대 수감인원은 75% 증가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졌던 식민지 권력의 억압이 감옥 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진번호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우 동일 사건으로 수감된 인물됨을 알 수 있다. 번호 515번(이수희(116))~538번(이남규(112))의 경우 총 24명이 연속으로 나열되었는데 모두 배화여학교 기숙사 뒷산에서 펼친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 참여자들이었다.³²⁾ 그들의 수형기록카드 양식은 A형으로 사진촬영의 날짜와 장소가 없었으나 소은숙(80), 지은원(154) 카드에 1920년 4월 5일로 기재되어 있고, 형량 언도시기와 사진 배경으로 보아 해당 24명은 모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 된다.³³⁾

다만 촬영일이 1920년 4월 5일인 것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위 소은숙, 지은원 두 사람의 카드가 ‘大正 9년(1920년)’의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카드 양식의 앞면 사진 촬영 날짜 항목에 ‘昭和’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식 C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담당자는 C형 양식의 ‘昭和’라는 글자 위에 수기로 ‘大正’이라고 표기하고 날짜를 기재한 것이다. 즉, 위 해당 두 사람의 카드는 훗날 정리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혹은 훼손되었던 것을 양식 C형이 처음 사용되었던 1930년대를 전후 재 기록된 것이다. 재 기록과정에서 사진촬영 일자가 없자 당시 재판을 언도받은 날짜 ‘1920년 4월 5일’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즉, 수형기록카드는 서대문형무소에 입감된 후 사진을 찍고 즉시 기록하였으나, 일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기록하였

31) <어윤희 등 2인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 4. 11.

3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2, 고려서림, 1983, 121쪽.

33) <이수희 등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20. 4. 5. <배화여학교의 만세호창 여성, 작일 판결언도>, 《매일신문》1920. 4. 6.

던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수감자들에 대한 관리가 해당자의 수감 전후 시점 뿐 만 아니라 일제강점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배화여고 학생 수형기록카드 양식 A형과 C형 비교】



배화여고 학생 김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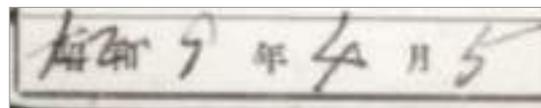
양식 A형



배화여고 학생 소은숙



양식 B형



양식 C형

이러한 특징은 사진번호 366번(김순호(30))~371번(유관순(101))의 6명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3.1운동으로 수감되었으나, 운동의 시기는 각각 다르고 입감시기도 각각 다르다. 다만 사진의 배경이 감옥 창살 아래로 같은 것으로 보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고, 일제는 이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1930년대 전후 연번을 부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유관순과 어윤희(95), 신관빈(85), 임명애(137), 심명철 등은 여역사(여구치감) 8호 감방에 같이 수감되었다.³⁴⁾

또 사진번호 11,559번(이순옥(119))~11,568번(윤옥분(107)) 10명도 모두 동일 사진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1930년 1월 29일 같은 날 사진을 찍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1930년 1월 15일 서울시내 여학생 만세운동으로 함께 수감되었던 것이다.

넷째, 이렇게 사진번호가 연속된 번호로 이어지고, 사진 촬영 날짜가 동일한 인물들은 그룹화가 가능하다. 그룹별 그 활동 내용을 추적해 보면 다음 페이지와 같다.

개인적 활동을 제외하고 사진 보존원판 번호와 촬영날짜를 토대로 그룹화 할 수 있는 여성 수감자들의 주요 활동내용과 그에 따른 수감시기 등을 분류하면 약 20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동의 종류별로는 크게 만세운동(A,C,B), 흥사단(E), 근우회(F)⁴²⁾, 서울계공산당 재건⁴³⁾ 및 이화여고 맹휴⁴⁴⁾(G), 조선공산당 재건 그룹 관련 노동운동·학생운동(H,L,M,N,O)⁴⁵⁾, 신사

34) 이정은, 『3.1운동의 열 유관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32쪽.

【사진 보존원판 번호로 그룹화가 가능한 인물들의 활동】

그룹	인물	활동내용(수감사유)
A	김순호(30) 이신도(120) 노순경(49) 임명애(137) 신관빈(85) 어윤희(95) 유관순(101)	3.1독립만세운동/세브란스 간호사 ³⁵⁾ 개성, 천안
B	이수희(116) 윤경옥(105) 최란(씨)(159) 왕종순(100) 박하향(72) 소은숙(80) 안희경(94) 김마리아(18) 성혜자(78) 손영선(81) 김경화(12) 이신천(122) 김성재(29) 소은명(79) 안옥자(92) 지은원(154) 박경자(55) 이용녀(127) 문상옥(52) 한수자(170) 박신삼(62) 박양순(63) 김의순(37) 이남규(112)	배화여학교 만세운동
C	박정선(68) 이신애(121)	3.1독립만세운동/안국동 광장
D	이영자(123) 이순옥(119) 송계월(82) 최복순(161) 최윤숙(165) 김진현(40) 조금옥(147) 안갑남(89) 최현수(167) 안임순(93) 윤옥분(107) 민금봉(53) 최정옥(166) 김덕순(16) 한정희(171) 정형길(146) ³⁶⁾ 박선숙(57)	서울시내 여학생 만세운동
E	조성은(149) 백정호(75)	흥사단 관련/고등과 수배용 카드
F	노함풍(50) 유덕희(102) 강정희(4)	근우회
G	김계향(13) 임순득(138) 조숙현(150) 이정순(132) 김만순(19)	서울계공산당 재건/이화여고 맹휴
H	이미순(134) 박진홍(70) ³⁷⁾	경성노조, 이재유 관련
I	조신녀(152) ³⁸⁾ 황흥임(180) ³⁹⁾	공산주의 운동
J	남영실(46) 이설혜(115) 남인희(47)	미상
K	임춘자(139) 함귀래(172) ⁴⁰⁾	조선공산당/신간회
L	김월옥(36) 박호진(73) 김명순(20) 강정신(3) 맹계숙(51) 정계원(144) 이예분(124) 이경선(109) 김 현(41) 이정숙(131) 강혜숙(5) 오일순(97) 경석호(6) 신명예(86) 박소순(59) 최화순(168)	경성노조, 이재유 관련
M	최승원(163) 노숙인(48)	경성노조, 이재유 관련
N	이효정(136) ⁴¹⁾ 유해길(104) 강귀남(2)	경성노조, 이재유 관련
O	김영원(32) 김재선(38)	경성노조, 이재유 관련
P	이병희(114) 홍종례(177) 최경창(157) 박 운(66) 이옥란(126)	경성노조, 이재유 관련
Q	안순임(91) 한계순(169)	미상
R	김성녀B(27) 서병인(76) 김규옥(15) 김완흥(34) 황학열(179) 이운향(128) 김봉녀(23) 옥정상(99)	신사참배 거부 운동
S	심재순(88) 박순임(61) 정갑복(143) 채정희(156) 이정남(130) 최광순(158) 황영임(178) 민인숙(54) 차양순(155)	미상
T	박정식(69) 강간년(1) 안순이(90) 김귀현(14) 이현애(133)	국가총동원법 위반

참배 거부(R), 국가총동원 거부(T), 공산주의 운동(I), 조선공산당. 신간회(K)⁴⁶⁾ 등 9가지로 볼 수 있다.

이외 개인적인 활동으로 간도공산당 사건[전근숙(140)⁴⁷⁾, 최상화(162)⁴⁸⁾, 의열단 활동[최복동(160)⁴⁹⁾, 무궁화 노래 전파[남궁경순(45)⁵⁰⁾, 북풍회[송봉우(83), 정종명(145)⁵¹⁾, 천황송배거부[고

강순(5), 김천고성(42)⁵²⁾, 부영버스 파업[고수복(10)] 등이 있다.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미상 가운데 Q그룹의 안순임과 한계순은 같은 고향 출신(함경북도 성진시 학동)이고 20대 초반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수감되었으며, 두 사람의 사진촬영일(1939. 8. 27), 연도일(1939. 8. 7), 형량(2년 6개월)이 동일하여 같은 사

35)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 4명 판결연도>, 《매일신보》1919. 12. 20. <박덕혜 등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 12. 18.

36) <학생공산당조직 계획에 관한 건>, 용산경찰서, 1930. 9. 1.

37) <이재유 애인 박지홍 등 심문>, 《조선중앙일보》1936. 7. 16.

38) <조신녀 등 공산주의운동 판결문>, 경성북심법원, 1933. 1. 26. <함남 고원 김명섭, 조신녀 검거>, 《동아일보》1932. 9. 4.

39) <개성공산당사건 11명 공판개정>, 《조선중앙일보》1934. 10. 24.

40) 동생 함홍래에 의하면 누이가 평소 '신간회'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한다.

41) <송국된 적색노조 12명 예심회부>, 《동아일보》1935. 12. 28.

42) <근우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 《동아일보》1928. 7. 16.

43) <서울계공산당 재건설계획 검거의 건>, 경기도 경찰부, 1931. 9. 7.

44) <사립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생도 맹휴에 관한 건>, 서대문경찰서, 1931. 9. 7.

건에 함께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S그룹은 9명의 주소가 모두 서울 휘경동 189번지로 동일한 것으로 위 거주지 분류에서 보았듯이 공장 노동운동 참여자들로 보인다.

2) 형량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들의 형량은 얼마나 되었을까? 형량으로 독립운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지만 수형기록카드가 남겨진 181명 가운데 형량이 기록되어 있는 96명의 형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머지 85명에 대한 카드는 미결단계이거나 미 기재되어 있다.

【형량】

형명	형기	인원수	비율
징역	무기	1명	
	4년	2명	
	3년	3명	
	2년 6개월	4명	4.17%
	2년	10명	10.42%
	1년 6개월	6명	6.25%
	1년	10명	10.42%
	10개월	1명	
	8개월	6명	6.25%
	6개월	35명	36.45%
구류	50일	1명	
	39일	1명	
	20일	1명	
	13일	1명	
	구류취소	4명	
	기소유예	4명	
	예심면소	2명	
합계		96명	

가장 많은 인원이 받은 형기는 징역 6개월 형이고, 그 다음으로 2년 형, 1년 형의 순이다. 6개월 형이 많이 있는 것은 남아있는 수형기록카드 가운데 배화여학교 만세운동(24명)과 서울시내 여학생 만세운동(17명)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운동에 대한 형량이 대부분 6개월 형으로 선고되었기 때문이다.⁵³⁾ 또 여성들의 연령대별 특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대(64명)와 20대(72명)가 총 136명으로 전체 181명 가운데 75.13%의 비율로 나아가 어리고, 주로 학생들과 공장 노동자 및 회사원들로 평화적 방법의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형량이 많이 선고된 것 같다.

한편, 주도자들은 이보다 많은 형량을 받았는데, 배화여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경화(12)와 이수희(116)는 1년 형을, 서울시내 여학생 만세운동을 주도한 최복순(161)은 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⁵⁴⁾ 다만, 배화여고 만세운동 참여 학생들은 모두 2년 집행유예를 받아 1920년 4월 5일 형이 확정되고 그 다음날 6일 출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배화여고 학생들은 구속된 시점이 1920년 3월 초이고 출소된 시점이 1920년 4월 6일 이므로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약 1달 정도 수감생활을 한 것이다.

집행유예나 위 표에서 보이는 구류취소, 기소유예, 예심면소 등에 대해 실제 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면 곤란한 것이다. 위 판결도 일정한 재판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되어 수형기록카드에 기재된 것이므로, 재판을 기다리고 진행되는 과정-미결기간-동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구류취소자 4명[차양순(155), 채정희(156), 최광순(158), 황영임(178)]도 사진 촬영 일자가 1941년 6월 24일이고 출소 일자가 1942년 3월 6일 또는 1942년 2월 5일로 기록되어 있다. 판결은 구류취소로 나왔지만 실제로 미결수로 약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기소유예자 4명[유해길(104), 이옥란(126), 최경창(157), 홍종례(177)] 중 이옥란을 제외한 3명은 검거일자가 1936년 12

45) <경성사건 재건운동 검거에 관한 건>, 용산경찰서, 1935. 3. 19. <이재유일파 적화공작후계조직 검거>, 경기도 경찰부, 1935. 5. 7.

<경성좌익노조사건 12명 공판회부>, 《매일신보》1937. 6. 9. <조선공단산재건운동 협의 사건>, 《사상회보》, 1936. 11. 30.

<조선공산당재건 경성 준비 그룹 사건>, 경기도 경찰부, 1937. 2. 19.

46)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 발각 건>, 서대문경찰서, 1934. 2. 7.

47) <간도사건 제6회 기소>, 《신한민보》1931. 5. 28.

48) <중국 공당관계 최상화 출감>, 《조선중앙일보》1934. 9. 7.

49) <의열단 관계 불령선인 검거의 건>, 경성본정 경찰서, 1934. 6. 18. <최복동 신문조사>, 경성본정 경찰서, 1934. 9. 21.

50) <남궁경순 신문조사>, 흥천경찰서, 1933. 11. 9.

51) <북풍회 창립총회에 관한 건>, 종로경찰서, 1924. 11. 26.

52) <고강순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42. 12. 28.

53) <배화여학교 여학생들의 공판>, 《신한민보》1920. 5. 27.

54) <최복순 신문조사>, 서대문경찰서, 1930. 1. 18.

월이고 기소유에 판결일자가 1937년 5월 11일로 약 5개월 여 수감생활을 하였다. 예심면소 2명(이미순(134), 황학열(179))도 각각 1년 2개월, 2개월 여의 미결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미결로 구치된 기간은 형이 확정되면 '미결통산(未決通算)'이라 하여 확정 형기에서 미결기간의 일부를 감해주었는데, 이러한 미결통산이 수형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12명이 있다.

【미결 수감 기간】

미결통산 (通算)	500일	400일	300일	350일	247일
인물	139.임춘자	27.김성녀B	66.박온 114.이병희	169.한계순	8.고강순
미결통산 (通算)	100일	90일	60일	59일	
인물	39.김조이 109.이경선	24.김상석 65.박옥희	91.안순임	176.현금열	

미결통산은 실제 미결기간을 감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미결기간의 1/2이나 혹은 1/3을 계상해서 감해주었던 것이므로 실제 미결기간은 '통산'기간보다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까지 고려해야 한다.⁵⁵⁾

미결통산이 300일인 박온(66)과 이병희(114)는 검거일자와 사진촬영일자, 언도날짜, 출소날짜, 형량 등이 모두 같아 동일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병희가 이재유의 조선공산당 재건 경성준비그룹 '경성트로이카'의 지도하에 종연방직(鐘淵紡織)의 파업을 주도하다가 구속⁵⁶⁾되었고, 박온도 함께 활동하다가 같이 구속된 것이다.⁵⁷⁾ 그런데 이들은 1936년 12월 검거되어 1939년 4월 14일 형이 확정, 언도되었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지만 미결기간이 이미 형량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위 형량은 명분에 불과하고 이들은 실제 2년 5개월 동안 수감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결통산 기간은 300일로, 실제 수감기간 870여 일의 1/3에 불과하였다. 일제가 '사상범'에 대해 미결기간을 실 기간 그대로 계상해 주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이같이 일제는 독립운동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조사과정을 길게 가져가거나, 항소 시 재심판결 일정을 일

부러 늦춤으로써 미결기간을 늘렸다. 열악한 감옥생활과 전향을 강요하면서 수감자 스스로 지치게 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그리고 사상범 중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수감자에게는 '미결통산'을 계상해 주지 않는 수법으로 실질적으로 수감기간 늘렸다.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사상범'들의 수감 기간은 일제 식민당국의 의도에 따라 조절이 가능했던 것이다.⁵⁸⁾

따라서 향후 독립운동가의 공훈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기록상의 맹점과 일제의 수감기간 늘리기 수법을 감안하여 독립운동가의 형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수감기간과 미결기간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결통산 수형기록카드】



박온 수형기록카드

55) 김광섭, 『사상범』, 『나의 옥중기』, 1976, 204쪽□214쪽.

56) 〈의견서〉, 경기도 경찰부, 1937. 4. 1.

57) 〈치안유지법 위반 범인 이재유 검거〉, 경기도 경찰부, 1936. 12. 28. 박온은 해방 후 이중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여간첩 제1호 박온에 사형을 구형), 《동아일보》1958. 11. 8 / 〈여간첩 박온에 무기징역 언도〉, 《동아일보》1958. 11. 15).

58) 박경목, 『1930년 서대문형무소의 일상』, 《한국근현대사연구》6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85쪽.



이병희 수형기록카드

수감자에 대한 처벌은 1938년 중일 전쟁이후 식민지 경영이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우 강화되었다. 특히 그해 4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어 일제는 이에 대한 불복종에 대해 강도 높은 형량을 구형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국가총동원법 위반 혐의자는 17명으로 181명 대비 9.39%의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징역 10개월 1명, 징역 8개월 4명, 징역 6개월 8명, 징역 4개월 4명의 분포를 보여 8개월과 6개월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1920년 3월 배화여고 학생들의 만세운동 시 24명중 22명이 징역 6개월, 2명이 1년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1930년 1월 서울시내 여학생들의 광주학생운동 지지 만세운동을 전개한 학생들이 훈계나 미결로 끝났던 것에 비해 '국가총동원법 위반자'들은 적지 않은 형량을 받았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구형은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을 실형을 선고하였고, 실제 형량대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기록이 수형기록카드에 남아있다.

1920년대나 1930년대의 '보안법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에 비해 1940년대의 '국가총동원법의 위반'이 일제의 식민지 경영에 더욱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고, 일제강점 말기로 갈수록 조선인에 대한 형벌의 집행이 보다 가혹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위 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위 17명의 여성들이 조직적인 반대를 하였는지, 단순한 명령 불복종이었던지 파악해보아야 한다. 평범한 이웃의 아주머니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수감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제 식민권력의 대중 통제의 단면을 볼

【국가총동원법 위반 형량】

연번	이름	생년	직업	죄목	형량	연도일	입소일	출소일
1	1.강간난	1908년10월27일	사행상 系 行 商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6월	1942년7월9일	1942년7월17일	1943년1월17일
2	14.김귀현	1906년4월27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8월	1943년11월11일	1943년11월13일	1944년7월13일
3	26.김성녀A	1891년3월3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6월	1942년12월14일	1942년12월22일	1943년6월22일
4	44.김씨	1892년1월15일	직물상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4월	1942년11월19일	1942년11월27일	1943년3월27일
5	64.박오매	1905년11월24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6월	1944년7월24일	1944년7월27일	1945년1월27일
6	67.박입분	1916년7월25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4월	1942년6월17일	1942년6월18일	1942년10월18일
7	69.박정식	1906년4월27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6월	1942년7월20일		1943년1월21일
8	71.박춘도	1906년9월24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4월	1943년12월1일	1943년12월9일	1944년4월9일
9	74.백선옥	1913년3월1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8월	1944년8월19일	1944년8월25일	1945년4월25일
10	90.안순이	1903년12월22일	사행상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6월	1942년7월20일	1942년7월21일	1943년1월21일
11	96.오순이	1885년12월20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8월	1943년10월4일		1944년6월4일
12	98.오창례	1894년3월29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10월	1943년7월15일	1943년7월20일	1944년5월20일
13	103.유채옥	1907년7월15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4월	1943년10월11일	1943년10월19일	1944년2월19일
14	111.이기순	1916년10월8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8월	1943년7월29일	1943년8월6일	1944년4월6일
15	125.이옥덕	1906년6월11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6월	1944년7월6일	1944년7월10일	1945년1월10일
16	133.이현애	1913년12월9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6월	1943년11월11일	1943년11월19일	1944년5월19일
17	164.최용자	1900년7월8일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역 6월	1944년7월2일	1944년7월10일	1945년1월10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수감 당시 연령대도 박입분(67)(당 26세)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대 이상, 평균연령 38.9세로 10대와 20대가 75%를 차지하는 여성수감자의 비율로 보았을 때 연로한 편이다. 과연 평범해만 보이는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몇 개월씩을 옥살이해야 할 만큼 일제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위 표 박정식(69), 안순이(90)는 형량(6개월), 언도일(1942. 7. 20), 출소일(1943. 1. 21)로 모두 같이 동일 사건으로 검거·수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안순이의 직업이 사행상(系行商)인 것으로 보아 박정식 또한 같은 직업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직업을 가진 강간남(1)도 언도일, 출소일, 거주지역이 두 사람과 유사하여 같이 활동한 인물로 추정된다.

김귀현(14)과 이현애(133)도 형량과 출소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날 언도받고(1943. 11. 11), 수형기록카드의 사진 촬영일자와 장소가 같고(1943. 9. 22/서대문형무소), 거주지역(牧丹江 愛河)⁵⁹⁾이 같은 것으로 보아 이들도 동일 사건에 참가하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성들의 '국가총동원법 위반'에 대해 일 개인이 단순하게 일제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수감된 것이 아닌, 2명 이상의 집단적 대응 내지는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들 평범한 누이, 어머니들이 독립운동가로서의 반열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가총동원법 위반' 수형기록카드】



강간남 수형기록카드



김귀현 수형기록카드

5. 맺음말

이상 현재 보존되어 있는 서대문형무소 수감 181명의 여성 수감자에 대해 수형기록카드의 형태를 분류하고 기재 항목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수감되었던 옥사의 밀도, 수감자의 연령대, 출신지역, 연대별 수감인원, 주요 독립운동 활동, 형량 및 기록상에 내재되어 있는 미결기간, 동일 사건 그룹화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일제의 독립운동가 수감은 그들의 식민지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되었고, 특히 사상적 동향의 감시체제 강화와 전시체제로의 전환 등 민감한 시기에, 전자는 수형기록카드 양식 자체의 변화로, 후자는 식민지 초기에 비해 매우 엄격한 실행선으로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수형기록카드가 남아 있는 181명 가운데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훈을 인정받은 인물은 총 13명으로 6.6%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3.1운동 관련이 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그래도 2006년부터는 1명씩 이나마 꾸준히 발굴하여 포상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본문에서 다루었던 주요활동별 인물가운데 같은 활동으로 수감되었어도 어떤 인물은 공훈을 인정받았고, 어떤 인물은 받지 못하였다. 최소 사례로 노순경과 3.1운동을 펼친 세브란스

간호사 김순호(30).이신도(120), 이병희와 같은 사건으로 수감된 이옥란(126).최경창(157).홍종례(177), 이효정과 같은 사건으로 검거.수감된 강귀남(2).유해길(104), 근우회 활동의 강정희(4).노함풍(50).유덕희(102)를 비롯한 11명 등이 있다.

배화여학교 만세시위운동의 이수희(116).김경화(12)를 비롯한 24명, 서울시내 여학생 만세운동자의 최복순(116)을 비롯한 17명, 신사참배를 거부한 등대사 사건의 김성녀B(27).서병인(76)을 비롯한 11명, 의열단 활동의 최복동(160) 등은 독립운동 활동상이 명백함에도 단 한사람도 공훈을 인정받지 못했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 수형기록카드가 남겨진 181명 가운데 공훈을 받지 못한 나머지 168명 모두를 공훈의 대상 선상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의 사후(事後) 행적에 대한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수형기록카드가 보존되어 있는 인물들은 다행히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라도 되지만, 카드가 남아 있지 않은 대다수의 수감자들은 그 존재조차 찾기 힘들다. 노순경과 함께 3.1운동을 했던 박덕혜, 이재유와 함께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던 유순희, 이종숙, 이종희 등등 셀 수 없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묻혀져 있다.

현재 독립운동가 포상 인원 전체 14,761(외국인 제외)명 가운데 여성이 292명으로 1.98%밖에 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를 딱히 수치로 비교할 수 없지만, 카드가 남아있는 인물 5,340여 명 대비 여성이 181명(3.38%)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보면 독립운동가 포상 인원이 △1.4%, 숫자로는 190여 명이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본고에서는 남겨진 수형기록카드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지만, 수형기록카드가 남겨진 이들이 독립운동가로 검토할 대상 전부가 아니다. 수형기록카드의 사진 보존원판 번호 중 1944년대 말에 65,000번대 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으므로,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는 최소 65,000여 명 이상이 수감되었고, 이중 몇 퍼센테이지가 독립운동가인지는 알 수 있는 길이 요원하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카드에 수록된 인물이 5,340여 명으로 전체 수감인원의 8~9%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숫자의 독립운동가가 존재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은 수형기록카드에 수록된 인물마저도 상세한 내용이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위 공훈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에 이상의 방법론적 분석을 계기로 향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 활동이 진작되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되찾아지길 기대해 본다.

수형기록카드 보존 여성 수감자 중 국가독립유공 서훈자(가나다순)⁶⁰⁾

연번	이름	생년	공적	포상
1	고수복	1910년6월15일	부영버스 파업, 노동운동	2010애족장
2	김조이	1904년7월5일	공산주의운동, 중국공산당 연계	2008건국포장
3	노순경	1902년11월25일	3.1운동(서울 종묘)	1995대통령표창
4	박정선	1874년	3.1운동(서울 안국동)	2007애족장
5	신경애	1908년9월22일	근우회	2008건국포장
6	신관빈	1885년10월4일	3.1운동(개성)	2011애족장
7	심계월	1916년1월6일	경성노조	2010애족장
8	어윤희	1881년6월20일	3.1운동(개성)	1995애족장
9	유관순	1902년12월17일	3.1운동(충남 천안 아우내)	1962독립장
10	이병희	1918년1월14일	경성노조	1996애족장
11	이신애	1891년1월20일	3.1운동(서울 안국동)	1963독립장
12	이효정	1914년6월21일	경성노조	2006건국포장
13	임명애	1886년3월25일	3.1운동(파주 교하리)	1990애족장
14	김순호(김효순)	1902년7월23일	3.1운동(서울 종묘)	2015년대통령표창
15	이신도(이도신)	1902년2월21일	3.1운동(서울 종묘)	2015년대통령표창

59) 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 아이허(愛河).

60) 국가보훈처 공훈록 참조.

2018년 사업계획

교육·학술 연구사업

1. 랩으로 배우는 역사시간
 - 1) 여성독립운동가 발자취 따라 랩부르기 (빠른말 노래 부르기)
2. 국내외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유적지 답사
 - 1) 제천 윤희순 의병투쟁
 - 2) 제주 해녀3.1항쟁
 - 3) 목단강 팔녀투강/태항산 항일연군 전투
3. 학술연구
 - 1) 학술회의
 - 2) 전문가 토론회
 - 3) 독립운동가 구술·녹취 사업

기념·현창 사업

1. 3.1혁명 99주년 기념행사 '오늘 그들 여기에'
 - 세미나 '3.1혁명 100주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2. 8.15 73주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제1회)
 - 1) 추모헌공차레
 - 2) 전시회(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시화전, UCC 등)
 - 3) 청소년 글짓기, UCC 컨테스트
 - 4) 토크콘서트
 - 5) 시민체험행사 등

홍보 출판 사업

1. 『항일여성』 발행
2.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자료집 발간
3. 항일여성 캐릭터, 우표, 만화, 영상 제작
4.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어록 현수막 걸기

연대사업

1. 항일단체연합
2. 3.1혁명 정명 청원사업
3. 식민사관해체 국민운동본부
4. 민주행동 민주포럼
5.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
6. 통일맞이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도위원 | 김경옥 김명연 김삼웅 김시명 나종일 문성근 박남식 방국진 신은영 양경숙 염락원 유희준 이덕일 이효재 임옥상 임진택 임현영 정동의 정원채 황기흠

회 장 | 김희선

이 사 | 강정숙 김선현 김애영 김진현 노명희 손 윤 신영숙 이미경 이민석 이상덕 이주한 이찬희 이행자 최성자 홍정석

감 사 | 이은주 이승환

기획위원장 | 신영숙

기획위원 | 강정숙 김서경 김운성 남상만 박정희 박창식 양해경 이구영 이승환 이은주 최진섭 홍정석

홍보교육위원회 위원장 | 홍정석
위원 | 김경실 박남식 박정희 이미경

청년부위원회 | 노하연 백소망 신연정 심소라 이보나 이수지

사업부위원회 위원장 | 이찬희
위원 | 김경옥 김명연 이승환 이은경 이은주 이길용

자원봉사단장 | 김진현
단원 | 박정희 이은경 이은주(문해) 이은주 주영석

사무처 | 처장 남상만 국장 최현철 팀장 전경미

“아낌없으신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개인 회원 ♡

강성종 강원기 강정숙 국경복 김경순 김경실 김경옥 김광희 김기봉 김동민 김명연 김명옥 김명주 김민성 김병국 김병기
 김삼웅 김서경 김선경 김선현 김성호 김성훈 김세원 김순단 김시명 김애영 김연옥 김영섭 김영조 김영주 김영훈 김예진
 김완순 김운성 김운채 김윤경 김은미 김인호 김일진 김자동 김정화 김종민 김지희 김진현 김진후 김창한 김희선 나종일
 남상만 노명희 노영숙 노우숙 노재훈 문병호 문성근 문시안 문인철 문향숙 민경선 민향선 박경목 박남식 박순경 박은희
 박장우 박정철 박정희 박종분 박창식 박태균 박해숙 방국진 방승환 방영철 배기성 배성호 백소망 변경순 서보현 서쌍원
 설 훈 성기홍 성세정 손덕수 손 윤 손희영 송보경 송현권 신상균 신영숙 신은영 신재남 신종근 심소라 안희정 양경숙
 양미강 양재원 양혜경 양호준 연락원 오상욱 오화자 유승희 유인경 유종일 유준상 유홍준 윤여운 윤영전 이구영 이기탁
 이길용 이덕일 이동철 이만열 이미경 이미희 이민석 이보나 이상덕 이석문 이석현 이성래 이승환 이은경 이은주문해 이
 은주춧불 이정원 이정환 이종걸 이종찬 이주한 이진규 이찬희 이항중 이행자 이효재 이희수 임쌍금 임옥상 임용석 임진
 택 임현영 장병화 장유식 장정수 전경미 전기호 정동익 정성호 정세균 정순영 정영진 정원채 정유경 정춘생 정춘숙 조
 정식 조희숙 주영식 지광희 천병태 천혜진 최광호 최성자 최윤정 최은규 최정현 최진섭 최진아 최현철 최황열 하명호
 하지완 한의성 함세웅 홍사립 홍소연 홍정석 홍철의 황기흠

♡ 단체 회원 ♡

광복회 김예진목사기념회 김학규오광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요가
 스포츠연맹 대한요가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월혁명회 서울시요가연합회
 여천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인쇄출판새롬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
 (주)에너지파트너 지광회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민족평화통일
 연구소 헤림교회 화윤차례문화원



- 발행인 : 김희선 • 발행처 : (사) **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발행일 : 2018년 3월 26일(3호)
- 후원안내 / 회원가입 : (사) **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598001-01-274481 김희선(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가입문의 : (전화:02)924-0660, 팩스:02)924-0670, 메일: herstory0301@gmail.com), 카페 : <http://cafe.naver.com/herstory0301>
페이스북 : [facebook.com/herstory0301](https://www.facebook.com/herstory0301)
- 주 소 :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용두동 232-20) 사숙재회관 402호
- 향일여성 **3호** **앞표지설명**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향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뒷표지설명 : 3.1혁명에서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8월의 소나기를 맞으며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대행진 기념식